

송미령 “농촌, 국민의 쉼터와 일자리 공간으로 탈바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2024 농업박람회'

aT센터서 개막 8일까지 진행

농업과 삶 등 4가지 테마관 조성
농촌특화지구관·콩페스타 등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대한 구조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 농촌이란 국민이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농촌특화지구관 등을 둘러보고,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청·당부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제고를 위한 전시·체험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촌특화지구관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서울 양재 에이티(aT) 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통해 농촌공간계획으로 변화될 새로운 농촌 공간이 중점적으로 소개된다. 또 이른바 '합한 농촌' 사진 경연대회가 부대행사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송 장관은 “올해는 특별히 국민 모두

에게 쉬고, 일하고, 살고 싶은 새로운 농촌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농업·농촌을 즐기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의 농산물관을 둘러본 뒤 전략작물인 우리 콩의 중요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창업관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발전에 대해 청년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개막식에는 관람객을 비롯해 농업인·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박람회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다'라는 주제 아래 ▲농업과 삶 ▲농업의 도전과 미래 ▲색깔있는 농업 ▲활기찬 농촌이라는 4가지 테마관을 조성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흘간의 박람회에선 '농촌특화지구관'이 핵심 테마관으로 운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와 7대 농촌특화지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올해의 농산물관'도 처음 선보인다. 매년 하나의 대표 농산물을 선정해 해당 농산물의 역사·요리법·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도입했다. 올해는 국산콩을 활용한 K-콩 페스타관으로 운영한다.

부대행사로, 농촌에서의 삶과 추억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관객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해 순위를 정하는 '합촌사 진공모'가 열린다. 행사장 3층 제2 전시장 합촌사랑대회 투표존에 마련돼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미래 농촌을 함께 그려보는 '아그리테드'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뉴에이지웨이브' 학술대회도 열린다. '변화와 위기 속 농촌 활성화 전략', '청년세대 일자리육성 세션: 잡아라 갓생긱잡'이라는 2개의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전시장 앞마당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터도 열린다. 한우, 한돈, 오리, 과일, 양곡, 홍삼 등의 농축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임금체불 근절·노동약자 보호 최우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 긴급 소집
체불임금 청산·악질 사업주 처벌 전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추진 지원 강화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추석 전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신속처리 등에 전념하고, 지방관서 기관장은 매일 관할 지역의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임중한 체불 상황에서, 추석 명절 전 집중적인 체불임금 청산과 관리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약 9600억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것은 전국 48개 기관장과 2200여 명 근로감독관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라면서 “아직 약 2600억원의 임금 체불액이 남아있는 만큼 임금체불 예방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임금체불 및 약자보호 관련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체불과 청산 현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과 체불임금 청산, 악질 체불 사업주 처벌에 더욱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채용이나 산업안전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고용,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금체불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취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회의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임금체불 등 노동약

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각 지역의 임금체불 및 청산 현황과 함께, 악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강화, 추석 명절 체불신고 전담창구 운영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임금체불 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의 상당금액을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노동약자 보호강화 방향도 공유됐다. 임금체불 근절 노력에 더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 돼왔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기자 kdh@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제한 품목 확대

산업부,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무기화가 가능한 품목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금지 조치가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제35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비전략물자 중 균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43개 품목이 추가돼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추가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구부품, 센서 등 균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9일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계약분 수출(9월8일까지 수출계약 체결된 경우)이나 국내 기업의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 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에서 구조대원들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파손된 군사 대학 건물에서 작업하고 있다. 현지 당국은 러시아군이 폴타바를 공습해 최소 47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뉴시스

아울러 최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의적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지침' 개정안도 9일 시행된다.

개정 지침은 반복·고의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한게 골자다. 또 최초 위반이면서 수출금액이 1000달러 미만인 경미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독려

환경부,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환경부는 오는 6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제16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올해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이제 그만, 바이 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이다.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

회를 앞두고,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국민 관심을 환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 같이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는 ▲자원순환 선도 및 감량 ▲포장재 및 일회용품 감량 ▲순환골재 등 우수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 자원순환 분야에서 공로가 큰 기업, 지자체 등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기념식과 함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도 펼쳐진다. 먼저,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입구와 녹음광장에서는 ▲폐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제품·작품 전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 ▲분리배출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이곳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과 안전을 고려하여 제작한 중·소형급 한국형 청소차를 전시한다.

아울러 오는 8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누리집에서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실천 모습 인증 등 일상 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캠페인)이 진행된다.

/김대환 기자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아요”

농식품부·해수부, 9~15일까지 진행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내 환급행사가 열린다. 최대 4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축산물 120개소와 수산물 114개소 등 총 234개 시장(중복 포함)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